

직지의 내용과 의미

1) 『직지』의 내용

『직지』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의 제자인 석찬(釋燦)에 의해서 사찰에서 제작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고, 이듬해 여주 취암사에서는 법린(法麟) 등에 의해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직지』는 본래 석옥청공이 초록한 것으로 1권이었으나, 백운선사는 『조당집(祖堂集)』(952년),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1004), 『선문염송(禪門拈頌)』(1226), 『오등회원(五燈會元)』(1252), 『인천안목(人天眼目)』(1258) 등의 문헌을 토대로 145가의 법어(法語)를 가려 뽑아 상·하 2권으로 편집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임제종의 『벽암록(碧巖錄)』(1117)이나 조동종의 『종용록(從容錄)』(1223) 등과 비교하여 선종(禪宗)의 강요(綱要)와 체계(體系)가 더욱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지』의 내용은 취암사판본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크게 11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표 참조>

상권(上卷)에는 과거(過去) 장엄검(莊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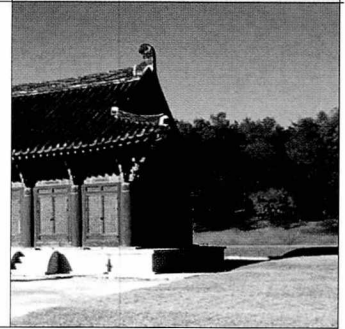
劫)에 나신 비바시불(毘婆尸佛) 이하 현재(現在) 현겁(賢劫)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에 이르는 7불(佛)의 계어(偈語)를 중심으로 인도의 28조사(祖師), 중국의 6

<표> 直指의 體系와 내용

체 계	내 용
과거 7불	과거 7불의 계송(偈頌)을 실었다. 『전등록』에는 출세, 족성(族姓), 부모, 생자(生子), 제자, 시자(侍者), 소거지성(所居之城), 도량수(道場樹), 초회설법중(初會說法衆) 등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계송과 백운화상의 간단한 주해만이 실려 있다.
인도의 28조사	인도에서 선종을 전승한 28존자의 출가와 깨달음, 교화지역 등을 실었다. 특히 가섭을 선종(禪宗)의 종조로, 아난을 교종의 종조로 삼아 선교일치(禪教一致)를 강조하였다.
중국의 6조사	중국 선종의 6조사 가운데 제6조 혜능(慧能)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중국 5가 7종 조사	영가현각(永嘉玄覺)의 선문답과 증도가(證道歌)의 계송, 황벽희운(黃蘗希運)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임제종의 임제의현(臨濟義玄)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좌선명(坐禪銘)	『치문경훈(緇門警訓)』에 실려있는 아호대의화상(鵝湖大義和尚)의 「좌선명(坐禪銘)」이다. 『직지』의 편찬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권으로 이어지며 5가 7종의 조사를 기록하는 대신에 좌선명으로 참선(參禪)의 중요성을 보였다.
중국의 5가 7종 조사	신라 대령(大嶺)의 계송을 수록하고 있다
설법(說法)	몽산덕이(蒙山德異) 화상의 설법을 통하여 삼보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가송(歌頌)	『신심명(信心銘)』과 『증도가(證道歌)』에 영향을 주었던 악보화상(樂普和尚), 보지공화상(寶誌公和尚)의 계송이 실려 있다.
경론(經論)	『미증유경(未曾有經)』·『능엄경(楞嚴經)』·『기신론(起信論)』의 핵심을 인용했다.
서장(書狀)	동산양계(洞山良价)의 부모님께 이별을 고하는 시를 실어 출가자의 마음자세를 경계하였다.
경훈(經訓)	규봉종밀(圭峯宗密), 용아둔(龍牙遁), 대법안선사(大法眼禪師)의 계송과 천복승고(薦福承古)의 「면학(勉學)」이 실려 있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찬자인 백운 경한(1299~1374) 선사는 '무심선(無心禪)'이라는 독특한 선풍(禪風)을 형성하였던 고승이었다. 선사의 불교적 성향은 '무심선풍(無心禪風)', '무심(無心)', '무심선(無心禪)', '무심무사(無心無思)'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조사 그리고 중국 여러 종파의 스님들 가운데 혜안국사(惠安國師)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하권(下卷)에는 아호 화상(鵝湖和尚) 이하 고덕화상(古德和尚)에 이르기까지 도를 깨치고 전하는 여러 법어(法語)를 뽑아 수록하였다.

상권에서 처음 다루어지는 과거 7불은 비바시(毘婆尸), 시기(尸棄), 비사부(毘舍浮), 구류손(拘留孫), 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 가섭(迦葉) 그리고 석가모니(釋迦牟尼)를 말한다. 이곳에서의 과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이전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인도의 전통적인 조상 숭배 방식에 영향을 받아 일곱부처님만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7불 중의 마지막 4불은 현겁(賢劫)의 천불 가운데 최초의 4불(四佛)로 알려져 있다.

인도의 28조사는 가섭존자(伽葉尊者)로부터 불법을 계승한 28명의 조사를 말한다. 이 편에서는 선종을 대대로 전승하는 과정에서 28조사가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

어 교화한 내용을 싣고 있다. 가섭과 아난(阿難)으로부터 시작된 전승은 반야다라(般若多羅)와 보리달마(菩提達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이십팔조설(二十八祖說)은 동진(東晉, A.D. 408~421)시대에 불타발다라(佛陀跋陀羅)에 의하여 번역된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의 9조설과 북위시대(北魏時代)에 길가야(吉迦夜)와 담요(曇曜)가 함께 찬술한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의 24조설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29조로 정리했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를 거쳐 돈황본 『단경(壇經)』에서 처음으로 서천(西天) 28조 동토(東土) 6조의 조통설(祖統說)을 정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천28조 전등설(傳燈說)은 『보림전(寶林傳)』에 이르러 새롭게 조사선(祖師禪)의 조통설로 완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중국의 6조사이다. 6조사는 많이 알려져 있는 마와 보리달마(菩提達磨)로부터 시작하여 혜가(慧可) - 승찬(僧璨) - 도신(道信) - 홍인(弘忍) - 혜능(慧能)을 말한다. 5조 홍인의 문

하에는 혜능 외에 신수(神秀)가 있었는데 선사가 전했던 것을 혜능의 남종선(南宗禪)과 비교하여 북종선(北宗禪)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선종은 혜능의 뒤를 이었던 청원행사(靑原行思)·남악회양(南岳懷讓)·영가현각(永嘉玄覺)·남양혜충(南陽慧忠)·하택신회(荷澤神會) 등에 의하여 위앙(僞仰)·임제(臨濟)·조동(曹洞)·운문(雲門)·법안(法眼)의 5가(家)와 임제종에서 분화된 황룡(黃龍)과 양기(楊岐)의 두 파를 합한 5가7종(五家七宗)으로 발전하였다.

6조와 그 제자 5명의 선사 이후에는 중국선종사의 5가7종 시대를 열었던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의 앞부분에 「장폐마왕과 금강제보살」의 항목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사들이 지녔던 불교사에서 위상이 다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백장회해(百丈懷海)로부터 시작하여 혜안국사(惠安國師)에 이르기까지 34명의 법어 및 일화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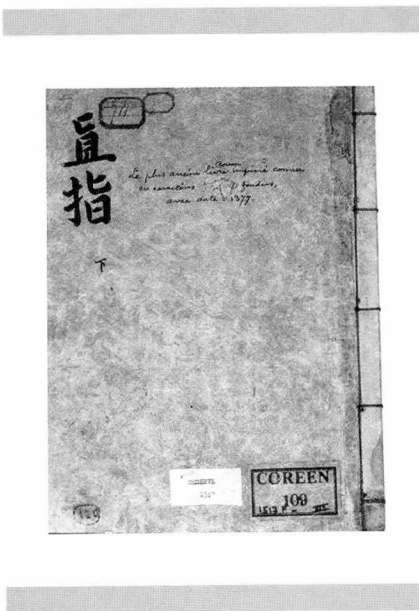
하권의 시작은 아호대의화상(鵝湖大義

『직지』의 간행은 인쇄사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라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직지는 사회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도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지』의 간행은 고려 후기의 격동기속에서 사회의 안정과 개혁을 추구하고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和尙)의 「좌선명(坐禪銘)」으로 시작하여 대주혜해(大珠慧海)로부터 시작하여 몽산덕이(蒙山德異)에 이르기까지 63명의 선사와 우적상공(于迪相公)·장졸상공(長拙相公) 그리고 화엄좌주(華嚴座主) 등과 선사들과의 문답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신라 대령(大嶺) 선사의 계승을 싣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선사로서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선사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으나 청원행사의 법손이라 소개되어 있다. 이어 『미증유경(未曾有經)』·『능엄경(楞嚴經)』·『기신론(起信論)』 등 경론의 요체를 설명하였고, 마지막 부분에는 천복승고(薦福承古)의 『면학(勉學)』을 싣고 있다.

이같은 직지의 수록 내용을 통하여 몇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과거7불(過去七佛)로부터 여러 조사(祖師)들의 계승(偈頌)을 기록하면서 간단한 주(註)로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영가현각(永嘉玄覺)의 선문답(禪問答)과 증도가(證道歌)의 경우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임제종의 중주로 평가되는 임제의현(臨濟義玄)은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등록(傳燈錄)』 등에서 나타나는 상세한 내용과 비교할 때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직지』가 편찬 당시의 불교서들이 약술되었던 시대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인도에서 선종을 전승한 28존자를 다루면서 가섭을 선종의 종조(宗祖)로 삼고, 아난을 교종의 종조로 삼아 선교일치(禪教一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치문경훈』에 실려있는 아호대의 화상 『좌선명』을 실어 참선(參禪)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미증유경』·『능엄경』·『기신론』의



핵심을 인용하여 마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산양개(洞山良价)의 부모님께 이별을 고하는 시에서 강조한 출가자의 마음자세와 마지막으로 천복승고(薦福承古)의 『면학(勉學)』을 실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함을 강조한 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지』의 간행은 인쇄사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이라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직지는 사회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도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직지』의 간행은 고려 후기의 격동기속에서 사회의 안정과 개혁을 추구하고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불교 사

상은 당시 어려웠던 현실속에서 정신적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직지』는 선사상에서 오랜 전통으로 전해져오는 공안들을 정리하여 수행하는 이로 하여금 이를 모범으로 삼게 하였다. 이는 당시 변질되어가는 불교 사상의 본래 정신을 되찾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의 한모습이었다. 한편 불교사적으로는 선교일치(禪教一致)를 통한 사상의 체계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지』는 그 형식에서 고승의 계승을 모으거나 교리의 요점을 간명하게 정리하는 요약본의 형태로 간행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당시 성행하였던 임제종(臨濟宗)에 매이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선사상(禪思想)을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경향보다는 사상적으로 탄력과 포용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교종(教宗)과의 일치를 통한 사상적 체계화를 기한 것이었다.

이상 3회에 걸쳐 직지의 저자 백운화상과 그의 사상 그리고 세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에게 있어 『직지』라는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가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가슴에만 묻어두고 지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 거울이라 했다. 그러나 거울에만 남아 있는 잔상이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진정한 전통의 계승은 거울을 보고 그 역사와 문화를 끄집어내어 오늘의 모습에 맞추어 새롭게 갖추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

(정제규 · 충청북도 문화재감정관)